



SUKHAVATI

FC ANYANG MAGAZINE · 수카바티

2022 FEBRUARY Vol. 75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커뮤니티 **안양**

PEARLABYSS

LEADERS

서울나우병원

VEXX

1부 리그를 향한 끝없는 도전!

2022 SEASON

긴 항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FC안양, V-EXX(브이엑스)와 함께 한 2022시즌 유니폼 공개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 FC안양(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이 V-EXX(브이엑스)와 함께 한 2022시즌 유니폼 디자인을 공개했다. FC안양은 2022시즌 구단의 메인 컨셉인 “NEXT STEP”을 베이스로 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시도했다. 홈 유니폼은 구단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보라색을 바탕으로 금색으로 포인트를 찍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특히 하의와 스타킹에도 보라색을 적용해 통일감을 갖춘 게 특징이다.

어웨이 유니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흰색을 베이스로 한 뒤 깔끔한 회색과의 배색 조합을 통해 안양시민과 구단의 모든 구성원이 2022시즌 1부리그 승격을 염원한다는 의미를 담아냈다. GK 유니폼은 옅은 핑크색과 형광 연두색을 활용해 컬러감을 강조했으며, 넥라인과 팔소매 끝을 검정색으로 표현해 더욱 강인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2022시즌 FC안양 유니폼 디자인을 총괄한 V-EXX 유세종 부장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편안한 유니폼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FC안양 선수단이 최대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용품 후원사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FC안양 최대호 구단주, 2022 FC안양 연간회원권 1호 구매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 FC안양 최대호 구단주가 2022 FC안양 연간회원권을 1호로 구매했다. FC안양은 최대호 구단주의 구매를 시작으로 2022 연간회원권 오프라인 판매를 8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FC안양 최대호 구단주는 8일(화) 오전, 2022 FC안양 연간회원권을 1호로 구매하고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최대호 구단주는 “FC안양 선수단이 2022 시즌 1부리그 승격을 위해 경상남도 남해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2022 시즌 안양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FC안양은 “NEXT STEP”이라는 슬로건을 2022 연간회원권에 삽입했다. 지난 시즌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FC안양은 2022 시즌 1부리그 승격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담아냈다. 불규칙한 다각형 패턴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FC안양이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표현했다.

2022 FC안양 연간회원권 구매자에게는 FC안양 MD 상품 10% 할인권 1매, V-EXX 의류 용품 40% 할인권 1매, 리더스코스메틱 마스크팩 선착순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FC안양 연간회원권은 FC안양 사무국(031-476-3377)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오는 10일(목)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FC안양 펀크리에이터 7기, 수료식 통해 2021 시즌 활동 종료

프로축구 K리그2 FC안양(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이 진행한 스포츠산업 인재양성 프로젝트 “2021 FC안양 펀크리에이터 7기”가 지난 27일(월), 안양종합운동장 라커룸에서 열린 수료식을 끝으로 2021 시즌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FC안양 펀크리에이터는 한 해 동안 스포츠 산업 및 구단의 마케팅 활동, 브랜드 마케팅, 스폰서십, 경기 취재와 촬영 등 스포츠마케팅과 스포츠미디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개인 과제 및 조별 과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구단 홈 경기 현장 실습과 조별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프로축구단 업무를 경험했다. FC안양은 이날 진행된 수료식을 통해 수료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했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구단 상품을 추가 증정했다. 우수 수료자로 수료한 FC안양 펀크리에이터 이서영 씨는 “FC안양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이룬 해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코로나로 인해 무관중과 유관중 경기들을 모두 겪으며 홈 경기 기획과 운영 등 어떤 부분들을 신경써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라며 “현직 실무자인 구단 직원들에게 프로스포츠의 다양한 경험과 조언들을 들 수 있던 소중한 기회였다. 실무자 초빙 특강을 통해 구단 이외에도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의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FC안양은 오는 1월 중순, 2022 시즌을 함께할 펀크리에이터 8기를 구단 공식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FC안양 봉사단 ‘함께해-보라’, 우수 자원봉사단으로 감사장 수상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 FC안양(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이 운영하는 “함께해-보라” 봉사단이 우수 자원봉사단으로 감사장을 수상했다.

지난 10일(금) 오전, 안양시만안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1 자원봉사자 감사제”에서 FC안양의 “함께해-보라” 봉사단이 우수 자원봉사단으로 선정돼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는 FC안양 장철혁 단장이 참석했다. FC안양은 올해 “함께해-보라” 봉사단을 기획해 안양시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독거 어르신 생신상 챙겨드리기”, “독거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FC안양 “함께해-보라” 봉사단은 푸라닭 치킨, 헬커스, 리더스코스메틱 등 FC안양의 스폰서와 연계해 독거 어르신들의 생신상을 꾸준히 챙겼고, FC안양의 메디컬스폰서인 평촌서울나우병원 김준배 원장과 동행해 낙상 예방 및 생활 속 운동법 지도 등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겼다. 특히 건강 챙겨드리기 봉사활동은 봉사자를 체육 전공자로만 구성해 어르신들의 생활 속 운동법을 지도하는데 집중했다. FC

안양 장철혁 단장은 “관내에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 작은 활동이지만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봉사활동들을 통해 구단에서도 정말 많이 배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함께해-보라 봉사단을 기획하고 운영한 FC안양 정상용 사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에 FC안양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작은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시즌 FC안양 IN&OUT

2020시즌의 부침을 이겨낸 FC안양(이하 안양)의 2021시즌은 성공적이었다.

안양은 2020시즌 9위에 머물렀던 팀이었던 것을 까맣게 잊게 할 실력으로 시즌 내내

강팀의 위용을 보이며 K리그2 2위에 올랐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대전하나시티즌에 1:3으로 패하며 승격을 위한 도전은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FC안양은 K리그2에서 팀 득점 3위, 팀 최소 실점 4위로 골득실 2위에 오르며

균형 잡힌 축구를 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문제점을 인식한 구단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임대 신분의 핵심 자원 조나탄과 백동규를 완전 이적시키며 동시에 K리그1과 K리그2의 알짜 자원들과 협상했다.

그 결과 K리그1 팀과의 영입 경쟁에서 승리하며 이창용, 백성동을 영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K리그2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김동진, 황기욱, 연제민을 영입하고 다수의 신인을 영입하여 풍부한 스쿼드를 구축했다.

비록 핵심 자원이었던 맹성웅과 닐손주니어, 모재현을 떠나보낸 것은 아쉽지만,

뛰어난 선수들을 다수 영입했기 때문에 전력이 한층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공적인 겨울 이적시장을 보낸 FC안양은 한 발 모자랐던 2021시즌의 아쉬움을 딛고

2022시즌 승격을 위해 달려갈 준비를 마쳤다.

IN

조나탄(AD 알라후엘렌세, 완전이적), 백동규(제주유나이티드 FC, 완전이적), 김동진(경남, 이적), 박성수(대구, 이적), 이창용(성남, 자유

계약), 백성동(경남, 자유계약), 안드리고(과라니, 자유계약), 황기욱(전남, 자유계약), 연제민(안산, 자유계약), 이정빈(김천, 전역), 김주환(포항, 임대), 박종현(승실, 우선지명), 박재용(인천대, 우선지명), 전보민(제주국제대, 자유선발), 양정운(단국대, 자유선발), 이재용(한라대, 자유선발), 박경빈(한양대, 자유선발)

OUT

모재현(경남, 이적), 맹성웅(전북, 계약만료), 닐손주니어(부천, 계약만료), 하남(경남, 계약만료), 이선걸(전남, 계약만료), 박대현(김포, 계약만료), 김준섭(목포, 계약만료), 타무라(가이나레 돗토리, 계약만료), 양동원(은퇴), 박태준(성남, 임대복귀), 임선영(성남, 임대복귀), 최민서(포항, 임대복귀), 하승운(포항, 임대복귀)

남, 계약만료), 박대현(김포, 계약만료), 김준섭(목포, 계약만료), 타무라(가이나레 돗토리, 계약만료), 양동원(은퇴), 박태준(성남, 임대복귀), 임선영(성남, 임대복귀), 최민서(포항, 임대복귀), 하승운(포항, 임대복귀)

09

출생 1992년 1월 6일
키 187cm
체중 80kg



조나탄 모야 FW

조나탄은 코스타리카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공격수다. 2021시즌 임대 이적으로 FC안양 유니폼을 입었다. 동료들을 활용한 연계 플레이가 좋고 제공권 활용도 탁월하다. 골 결정력도 뛰어나 시즌 30경기 15골 1도움을 기록했고 K리그2 BEST XI 공격수 부문에 선정되었다.

FC안양은 2021년 11월 완전 이적 옵션을 발동했다. 2022시즌, 조나탄은 온전히 FC안양의 선수가 됐다. K리그2에 적응을 마친 올해는 리그 득점 1위도 노려볼만하다. 기존의 김경중, 아코스티, 심동운뿐만 아니라 백성동, 안드리고, 이정빈과의 협업도 기대된다.

백동규 DF

백동규는 지난 2014년 K리그 드래프트에서 3순위로 FC안양에 선발되어 안양 유니폼을 입었다. 1년 반 동안 활약 후 2015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 2021시즌 임대로 친정팀에 복귀해 탁월한 활약을 펼치며 FC안양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센터백으로 2021시즌 K리그2 전체 수비수 중 패스 성공(5위), 지상 경합(7위), 공중볼 경합(5위), 인터셉트(2위), 클리어링(9위) 등 대부분의 수비 지표에서 TOP 10 안에 들었다. 2022시즌 FC 안양으로 완전 이적하면서 주장의 중임도 맡게 된 안양의 '무사' 백동규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출생 1992년 12월 28일
키 177cm
체중 74kg

김동진 DF

김동진은 K리그에서 176경기에 출장한 베테랑 수비수로 2021시즌 경남FC 소속으로 35경기에 출장하며 주전으로 활약했다. 2021시즌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패스 시도(2,023회)와 패스 성공(1,621회)을 기록하며 경남 후방 빌드업의 핵심 축을 담당했다.

그는 체격이 탄탄하고 킥이 뛰어나 오버래핑 후 크로스와 중거리슛을 통해 공격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다. 안양의 왼쪽 측면 자리를 두고 2021시즌 K리그2 도움왕 주현우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 1990년 8월 27일
키 180cm
체중 76kg



이창용 DF, MF

이창용은 K리그1에서 121경기, K리그2에서 65경기를 출장한 수비수로 2021시즌 성남 FC에서 27경기를 출장하며 잔류에 기여했다. 성남 FC에서는 주로 쓰리백의 오른쪽 스토퍼로 활약했으며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좋은 활약을 보였다. 측면 수비로도 뛸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다.

그는 센터백으로는 단신이지만 좋은 점프력을 지닌 수비수다. 터프하고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이전 소속팀들의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다. K리그1에서의 러브콜을 뒤로 하고 FC안양으로 이적한 만큼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황기욱 MF, DF

황기욱은 전남으로 이적한 뒤 실력이 만개한 선수다. 2020, 2021 두 시즌 동안 전남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본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 윙백까지 소화하며 멀티 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을 과시했다. 지난해에는 전남의 주축 선수로서 전남이 K리그2 최초로 FA컵을 우승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출생 1996년 6월 10일
키 184cm 체중 74kg



출생 1991년 8월 13일
키 171cm
체중 66kg

백성동 MF

그는 2012 런던 올림픽 멤버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동메달에 기여했다. J리그에서 데뷔해 5시즌을 보낸 뒤 수원FC와 경남FC를 거쳐 FC안양에 합류했다. K리그2에서 5시즌 동안 156경기 33골 20도움을 기록하며 주축 선수로 활약했고 윙어,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다.

적지 않은 나이와 부상으로 인해 데뷔 초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이제 볼 수 없지만, 그의 경기력에는 노련함이 가미됐다. 여전히 드리블 능력이 수준급이며 동료를 활용한 원투 패스로 기회 창출에도 능하다. 프리킥과 코너킥 등 데드볼 킥 능력 역시 그의 큰 장점으로 수원FC와 경남FC에서 세트피스 키커를 전담했다.

출생 1993년 5월 28일
키 187cm
체중 82kg



연제민 DF

연제민은 수원 삼성 산하 매단고 출신 센터백으로 청소년 대표팀을 두루 거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다. 2014시즌 부산 임대를 거쳐 2015시즌 수원에서 22경기를 소화했고, 이후 전남드래곤즈, 부산아이파크, 가고시마 유나이티드를 거쳤다.

2020시즌 여름 이적시장에서 안산 그리너스에 입단해 핵심 수비수가 됐으며, 2021시즌 33경기에 출장해 뛰어난 활약으로 돌풍의 축이 됐다. 그 활약을 인정받아 2021시즌 K리그2 BEST XI 수비수 부문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다.

ANYANG'S VIEW

‘이번엔 기필코’ K리그1 승격 도전 안양, 승격을 위한 첫 단추 채울까



FC안양(이하 안양)의 2022년이 밝았다. 목표는 단연 승격이다.

안양은 전남드래곤즈와 2월 19일(토) 오후 4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2 2022’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해 안양은 정규리그 2위, 전남은 4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안양의 지난 시즌은 아쉬움 그 자체였다. 지난 시즌 안양은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대전에 1-3으로 역전패했다. 안양은 구단 사상 최고 성적인 정규 리그 2위를 거두며 창단 8년 만에 1부 리그로 올라갈 기회를 잡았다. 전반 초반만 하더라도 ‘주포’ 조나탄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면서 안양은 승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듯했다. 그러나 대전의 일격에 3골을 내리 실점하며 패배했고, 승격의 기회를 눈 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뼈 아팠지만, 안양은 절치부심했다. 올해만은 승격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올 시즌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 시작은 ‘폭풍 영입’이다.

우선 지난해 임대생의 신분으로 30경기 15골 2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2 BEXT XI 공격수 부문에 선정된 조나탄 모야를 완전 영입했다. 여기에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주역 백성동을 자유 계약으로 영입하며 공격의 기틀을 마련했다. ‘천재 미드필더’ 이정빈까지 군에서 전역해 합류하면서 안양의 공격진은 어느 때보다 매서워졌다.

수비진의 보강도 눈에 띈다. 안양은 지난 시즌 승기를 잡았음에도 유독 수비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승리를 놓친 경

기가 많았다. 이를 위해 K리그1에서 잔뼈 굵은 활약을 펼쳤던 센터백 연제민, 이창용을 자유 계약으로 품에 안았다. 또한 지난해 안양의 수비진을 든든히 책임지며 ‘임대의 전설’을 쓴 백동규를 제주 유나이티드로부터 완전 영입했다. 이들을 3선에서 보호할 ‘U23 대표팀 출신’ 황기욱까지 데려오며 탄탄한 수비를 구축한 안양이다.

경기력도 순조롭게 끌어올렸다. 안양은 비시즌 간 치른 연습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이 중 가장 최근 남해에서 가졌던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경기에서는 1-0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안양이 최근 치른 6번의 연습 경기에서 실점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어디까지나 연습일 뿐이지만, K리그1을 대표하는 구단인 수원에 승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안양이 지난 시즌의 뜨거웠던 분위기를 여전히 잇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아쉬움 가득했던 지난해를 돌아보면, 안양의 올해 과제 중 하나는 시즌 초반부터 상승세를 타는 것이다. 안양은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경남에 승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그러나 연이은 4경기에서 2무 2패를 거두며 흐름이 끊겼다. 승점 1점이 곧 K리그1 승격과 K리그2 잔류를 결정짓기 때문에 안양은 이번 전남 경기를 시작으로 쾌조의 스타트를 끊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올 시즌, 안양이 홈 팬들에 ‘최고의 첫 단추’를 선물할지 주목된다.

“올 시즌 목표는 좋은 경기력을 넘어선 팀의 1부 리그 승격”

FC안양 2022시즌 주장
30 백동규 DF

출생 1991. 5. 30.
키 185cm 체중 79kg



백동규 선수에게 ‘2022시즌’과 ‘FC안양’은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FC안양에서 2014년 프로 데뷔를 한데다가, 2021시즌 안양에 임대로 합류해 수준 높은 수비력을 선보이며 안양 수비진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8시즌 만에 프로 데뷔골도 기록했다. FC안양은 2022시즌 시작과 함께 그를 완전 영입했고, 주장 완장도 맡겼다. 여러모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상황. 이에 백동규는 “스스로도 평가받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올 시즌 목표는 좋은 경기력을 넘어선 팀의 1부 리그 승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Q. K리그2가 2월 19일 개막 경기로 정규리그를 시작한다.

김포FC가 리그에 새로 합류하면서 11팀이 팀당 40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각오는 어떠한가.

작년에 2위를 했다. 창단 이래 가장 높은 순위였지만, 외부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이제 2위를 하면 안 되는 팀이 되어 버렸다. 저희를 바라봐주시는 시선에 맞게 올 시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목표는 어떻게든 승격해서 1부 리그에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상 관리에도 각별하게 힘쓰고 있다.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어도 뛰지 못한다면 팀의 멋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에 주의하면서 현재 전력 보강과 체력 보충 중이다.

Q. 지난해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승강 플레이오프(P0)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패해 아쉬움이 컸다.

시즌 내내 강력했기에 마지막이 더욱 아쉬웠다. 한 골 실점 뒤 그대로 끝났다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서 뛰고 있었고, 또 수비 중심에 있었기에 팀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커 많이 아팠다. 승격과 별개로 리그 성적에 있어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주위에서 박수쳐 주셨지만, 매우 힘들었다. 그 부담감을 지금은 책임감으로 변환하는 중이다.



Q. 올 시즌 승격을 위한 조건으로 ‘실점 최소화’를 내 걸고 철저히 전력 보강에 나선 것 같은데.

매 경기를 마친 후 복기하며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낸다. 자책이라기보다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이다. 수비수들과 메시저를 통해 ‘몇 분 몇 초에 왜 이 자세가 나왔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 지점에서 서로 생각이 달랐다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진다. 수비수는 한 골, 한 골이 참으로 뼈 아파다. 지난해 36경기를 치르는 동안 37실점을 했다. ‘이 골만 막아 냈어도...’하는 장면은 10골이 되더라. 올해는 40경기에서 꼭 0점대 실점으로 승점을 쌓는 것이 목표다. 이는 저만의 목표가 아닌 팀의 목표로,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힘을 합쳐야만 이뤄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디펜스나 미드필더 쪽에 주안점을 두고 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

Q. 2022시즌의 주장 완장도 차게 됐다.

매 시즌 선수들은 ‘올해 몇 골 몇 도움을 하겠다’는 개인적 목표를 세운다. 올해는 선수로서도, 주장으로서도 그 개인적 목표가 모두 ‘승격’에 맞춰졌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개인적 욕심보다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 한 경기 한 경기 임할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Q. 그런데 몇 차례 주장 제의를 거절했었다고.

작년에는 부주장이었다. 2021 시즌을 이끌었던 주현우 선수가 선수들을 잘 다독여주는 스타일이었다면, 저는 팀의 규율을 잡기 위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다. 그런데 주장을 맡으면 그 쓴소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우형 감독님께서 “그건 네 그릇이 그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팀을 챙기면서도 할 말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에 오기가 생기더라(웃음).

감독님께서 전 선수,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 앞에서 올 시즌 주장을 발표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전 항상 선수 편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선수의 대변인으로서 구단과의 마찰이나 코칭 스태프 및 지원 스태프와의 관계 등 생활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항상 선수들 편에 서겠다고, 그러니 선수들에게도 믿고 잘 따라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장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힘을 불어넣어줘 고마웠다.

선수들의 신뢰 속에서 저 또한 생활면에서나 훈련장에서 모범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모범을 보여야 쓴소리도 할 수 있지 않겠나(웃음).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도 늘 강조한다. 평소 인사라든가 시간 약속 등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운동장 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원칙주의자적인 모습에 제 아내는 고지식하다고 얘기하더라. 아들들에게도 평소 인사 잘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웃음).

Q. 아이들이 축구에 관심을 보이지는 않나? 만약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축구교실을 다니곤 있는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말릴 생각이다(웃음). 왜냐하면 제 성에 차지 않으면 쓴소리를 할 게 보인다. 그 순간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신분으로 아이를 보게 될 것 같다. 만약 운동을 하고 싶다면 다른 종목을 해보라고 할 것 같다. 그리고 다행인건지 아직은 축구에 소질이 없어 보인다(웃음).

Q. 한편 2014년 FC안양으로 프로 데뷔를 한 만큼 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당시 드래프트였다. 이우형 감독님은 저를 취업시켜주신 분이다. 2014년 안양의 유니폼을 입고 두 시즌을 뛴 뒤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 근무한 기간으로는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FC안양은 제 친정팀으로, 마음에 품은 의미가 크다. 그런데 이 감독님께서 다시 말게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감독님과 호흡 맞춰 FC안양이 더 크게 도약하는 데 일조해보고 싶었다. 당시 안양이 힘들었던 시기임에도 이적할 수 있도록 감독님께서 도움을 주셨었는데, 이제는 제가 보답해야 할 때라 생각했다. 그렇게 지난해 안양으로 임대 이적했다가 다시 자리 잡게 됐다.

Q. 감독님은 평소 어떤 분이신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면 엄청 카리스마 넘치시는데 살짝 웃으실 때 감독님만의 인자한 미소가 있다. 그 웃음에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 말씀이 많으시기보다는 해야 할 때 한마디를 하신다. 선수들이 따라오게끔 마음으로 선수를 다루시는 분이다. 이러한 성품을 모두 알아보니 오히려 감독님을 위해서 선수들이 더 뭉치게 된다.

Q. 그나저나 지난 시즌, 8시즌 만에 프로 데뷔골도 기록했다.

8년간 데뷔골이 없었다. 그런데 안양 와서 처음 넣었다. 그것도 시즌 세 골이나. 골 맛을 보고 나니 기분이 좋았고, 그 다음도 욕심이 나더라. 하지만 중심은 수비수이기에 플레이 중엔 절대 욕심을 내서도, 내지도 않는다.

Q.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선수단과 함께하지 못하는 팬들의 아쉬움도 크다.

FC안양의 서포터즈인 A.S.U. RED의 육성 응원은 정말 엄청나다. 규모도 크거니와 응원도 잘하시고, 축구와 선수를 향한 열정과 애정이 뜨거우니 우리가 힘이 안 날 수가 없다. A.S.U. RED의 존재가 선수들에게도 절실하다. 어쩌면 작년에 그 함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웃음)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만큼 “RED는 우리 안양의 전술”이다. 아직 함께하는 자리는 불투명하지만 올해 꼭 다시 마주할 수 있길 기대한다.

Q. ‘FC안양’의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빠르면 내년 6월 착공해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인데, 팬들의 열망에 보답하기 위한 책임감이 더욱 막중할 것 같다. 어떠한가?

우리는 시민구단이다. 선수로서 갖는 책임감의 무게감이 다르다. K리그1 승격을 통해 클럽하우스와 전용구장 조성이 좀 더 탄력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승격은 저희에게도 의미 있지만 팬들과 시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좋은 성적으로 안양시민과 팬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높이고, 그 지지가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돌아가 더 나은 환경에서 관전하고 응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Q. 긴 레이스를 펼칠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모두 부상에 조심하면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한다. 그리고 전체 엔트리는 18명이지만, 이외 선수들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 선수들에게 “시즌은 길고 경기수는 많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지금 당장 경기장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회는 올 것이다. 그러니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시즌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뒤에 있는 선수를 더 많이 챙기게 된다. 이 선수들이 우리의 훈련 파트너이기도 해서 누구 하나 빠진다면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한 배를 탄 한 팀 아닌가. 끝까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팬들에게도 한마디 부탁한다.

시즌 종료 후 팀에 좋은 선수가 들어왔다. 들어온 선수 면면을 보면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인터뷰 때마다 ‘승격’, ‘승리로 보답’, ‘좋은 경기력’ 등을 많이 말씀드려 FC안양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셨을 것이다. 그런데 초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힘 있는 선수가 모였기에 순간순간으로 저희를 평가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지해주신다면 시너지가 폭발할 수 있으리라 본다. 긴 호흡으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시즌 FC안양을 기대하게 만드는 새 얼굴에 주목하라

16 박재용

인생사새옹지마



25 박종현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일찍 일비까지 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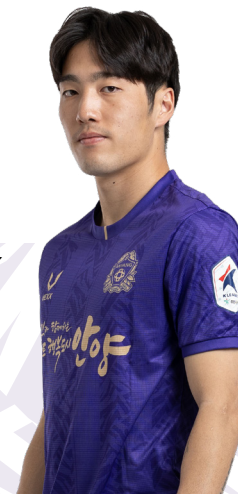
17 양정운

목표를 낮추지 말고,
노력을 올려라.



77 전보민

나 자신을 믿고
본능을 믿자.
내가 해온 시간을
믿고 즐기며 하자.



뛰어난 피지컬과 높은 제공력,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정통 스트라이커

Q. 프로 데뷔 첫 시즌이다. 올 시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고등학교 때부터 꿈에 그리던 팀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다. 프로 데뷔를 통해 신인다운 패기를 보여드리고 싶다. 또, 이번 시즌 승격이라는 팀의 목표를 함께 이뤄 팬분들과 승격 세레머니를 하고 싶다.

Q. 왜 꿈에 그리던 팀이었나.

박종현 선수와 함께 유스팀 안양공고 출신이다. 고교 1학년 때부터 볼보이를 하면서 선수로서 경기장을 뛰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여기까지 오는 데 6년이 걸렸다. 대학 가서도 FC 안양 경기는 다 챙겨봤고, 안양종합운동장에서 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져 가슴 벅차다.

Q. 안양시민과 FC안양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FC안양하면 A.S.U. RED.의 육성 지원이 생각나는데 안양의 선수로서 그 지원을 받을 기회가 생겨 기쁘다. 팬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 관심 부탁드린다.

스피드와 제공권, 위치선정 등 다양한 수비 능력을 지닌 중앙 수비수

Q. 프로 데뷔 첫 시즌이다. 올 시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프로의 시작을 FC안양에서 하게 되어 기쁘다. 경기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족스러운 활약은 물론이고, 데뷔전을 치른 후에는 계속해서 경기에 투입돼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열심히 하겠다.

Q. 박재용 선수와 같은 팀에서 함께 축구하게 된 소회도 궁금하다.

프로에 와서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도 들고, 친한 동료라 있으니 더욱 든든하다.

Q. 안양시민과 FC안양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고교 시절 재용이와 경기장을 찾았을 때 당시 팬들의 응원에서 열정뿐 아니라 승리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FC 안양은 팬분들이 계시기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당장 뵐 수 없어도 변함없이 응원해주셨으면 한다.

일대일 돌파능력과 박스 안으로 들어가 슈팅까지 연결하는 능력이 우수한 측면 공격수

Q. 프로 데뷔 첫 시즌이다. 올 시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팀이 우승하면 승격 또한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팀의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구현하시고자 하는 전술 속에서 제가 가진 색깔을 녹여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프로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도와준 팀인 만큼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의 실력을 통해 팀의 리듬에 보답하고 싶다.

Q. 안양시민과 FC안양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FC안양을 믿어주시고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 FC안양을 응원하시는데 더욱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좋은 경기와 성과로 답하겠다.

스피드를 이용한 드리블 돌파와 좁은 공간에서의 연계플레이,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 가능한 측면 수비수

Q. 프로 데뷔 첫 시즌이다. 올 시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태어나고 자란 제 고향 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돼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영광이다. 안양에 대한 애착만큼이나 FC안양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구단과 팬들이 염원하는 승격의 꿈을 이뤄 '승격 원년 멤버'라는 타이틀까지 얻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

Q. 백동규 선수는 '앞으로 우리 팀을 이끌 주축'이라고 소개하는 등 출발선에 선 여러분께 거는 선배 선수들의 기대가 컸다.

평소 저희를 챙겨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더욱이 선수 운용에 있어 22세 이하(U-22) 카드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만큼 저희도 함께 잘해야 한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

Q. 안양시민과 FC안양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선수이지만 안양시민인 만큼 FC안양의 승격이 그 누구보다 간절하다.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간절함을 담아 열심히 뛰겠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내본다면 축구로 인정받아 '안양의 아들'이 되고 싶다(웃음).

출생 2000.03.13 | 키/체중 193cm/85kg | 포지션 FW
출신학교 안양공고-인천대

출생 2000.11.24 | 키/체중 185cm/75kg | 포지션 DF
출신학교 안양공고-송실대

출생 2001.05.14 | 키/체중 176cm/68kg | 포지션 LWF
출신학교 단국대

출생 2000.05.10 | 키/체중 175cm/67kg | 포지션 LWB
출신학교 안양중-풍생고-제주국제대



올해로 창단 10년 차를 맞이한 FC안양,
2022 시즌 승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FC안양만이 가진 가치를 바탕으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NEXT STEP

23 이재용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히려 좋아”



55 박경빈

불광불급
절대 포기하지 말자.



볼터치가 부드럽고 연계플레이에 능하며, 도전적인 드리블 돌파를 자주 시도하는 측면 공격수

Q. 프로 데뷔 첫 시즌이다. 올 시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좋은 선배들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우며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탄탄히 기량을 쌓아 FC안양에서 인정받는 선수로 발돋움한 후에는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출전해보는 꿈도 품고 있다.

Q. 개인적으로 올해 팀 내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인가.
김경중 선수와 심동운 선수다. 어떻게 하면 볼을 그렇게 편안하게 다루실 수 있을까 싶다.

Q. 시즌 성과나 승패 상관 없이 FC안양과 함께 이루고 싶은 개인적 꿈이 있나.

일단 FC안양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 멀게는 탄탄히 기량을 쌓아 국가대표로서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이 목표다.

Q. 안양시민과 FC안양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FC안양을 향한 팬분들의 이번 시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출생 2002.09.20. | 키/체중 177cm/67kg | 포지션 RWF
출신학교 한라대

뛰어난 신체 조건과 함께 일대일 대인 방어 능력 역시 우수한 중앙 수비수

Q. 프로 데뷔 첫 시즌이다. 올 시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고참 형들이 중앙수비수 자리에 많이 계신다. 이를 기회라 여기고 곁에서 열심히 보고 배울 것이다. 동시에 선배 선수들이 가진 장점과 기술을 습득해 경쟁할 수 있는 선수로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Q. 시즌 성과나 승패 상관 없이 FC안양과 함께 이루고 싶은 개인적 꿈이 있나.

선배 선수들이 가진 장점과 기술을 습득해 경쟁할 수 있는 선수로 서고 싶다.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후에는 J리그 무대에도 진출해보고 싶다. K리그와는 또 다른 축구를 경험해보고 싶은 차원에서다.

Q. 안양시민과 FC안양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FC안양하면 경기 못지않게 A.S.U. RED의 열성이 기억에 남았다. 선수도, 코칭스태프도, 팬분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기에 마지막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FC안양에는 좋은 선수도 많고, 저희 같이 기대되는 자원이 있으니(웃음) 계속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한다.

출생 2002.07.22. | 키/체중 190cm/83kg | 포지션 CB
출신학교 한양대

STAFF



감독 이우형



수석코치 유병훈



코치 김연건



GK코치 최익형



피지컬코치 김성현



의무팀장 서준석



재활트레이너 황희석



재활트레이너 신영재



통역팀매니저 노상래



전력분석관 이재철



장비관리사 주종환



실장 조해원



스카우트팀장 송상일



스카우터 주현재

PLAYER



01 김태훈 GK



02 정준연 DF



03 최승훈 DF



04 이창용 DF



05 유종현 DF



06 임승겸 MF



07 백성동 MF



08 안드리고 MF



09 조나탄 FW



10 아코스티 FW



11 김경중 FW



13 정민기 GK



14 홍창범 MF



15 김형진 DF



16 박재용 FW



17 양정운 FW



18 유종우 FW



19 김주환 DF



20 이상용 DF



21 박성수 GK



22 김동진 DF



23 이재용 FW



25 박종현 DF



29 정보민 DF



30 백동규 DF



32 심동운 FW



40 연제민 DF



45 홍현호 FW



55 박경빈 DF



66 황기국 DF



77 전보민 DF



83 윤준성 DF



88 이정빈 MF



99 주현우 MF

2022 K리그2 FC안양 홈 경기일정표

Round	일 자	시 간	Away
1	2.19 (토)	16:00	VS 전남드래곤즈
2	2.27 (일)	13:30	VS 충남아산FC
3	3.06 (일)	13:30	VS 경남FC
5	3.16 (수)	19:30	VS 부산아이파크
8	4.02 (토)	16:00	VS 김포FC
11	4.18 (월)	19:00	VS 광주FC
14	5.07 (토)	13:30	VS 안산그리너스
17	5.22 (일)	18:30	VS 서울E랜드
18	5.28 (토)	18:30	VS 경남FC
21	6.18(토)	18:00	VS 대전하나시티즌
23	6.25 (토)	20:00	VS 서울E랜드
25	7.06 (수)	19:30	VS 충남아산FC
28	7.24 (일)	20:00	VS 대전하나시티즌
30	7.31 (일)	19:30	VS 부산아이파크
33	8.16 (화)	19:00	VS 부천FC1995
35	8.27 (토)	18:30	VS 김포FC
37	9.05 (월)	19:30	VS 전남드래곤즈
39	9.14 (수)	19:30	VS 광주FC
42	10.01 (토)	18:30	VS 안산그리너스
43	10.08 (토)	13:30	VS 부천FC1995

※ 각 구단사정과 기상상황으로 인해 일부 변경 가능

발행일 2022년 2월 19일 발행인 장철혁 발행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안양종합운동장

전화 031-476-3377 홈페이지 www.fc-anyang.com 편집장 문병현 디자인 매드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본 매거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